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교구위원회 월례회 / 5일(주) 오전 11시 202호
2.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 8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101호
3. 정기당회 / 8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4. 2교구 연합다락방 / 10일(금) 오전 11시 603호

◆ 알림

1. 101호 /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8. 603호 /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9. 606호 / 신촌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11. 701호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802호 / 영어성경부 : 주일 오후 10시 10분-11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15분-12시 55분
15. 이번주 심방 일정 / 9-1, 9-2다락방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합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나를 따르라”

■ 마가복음 2:13-17

오늘 본문은 제자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일생 흔들림 없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의 활동에 대하여 부르신 받는 장면과 12제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한 가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동처럼 묵묵히 서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지킨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은 그의 첫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1. 레위를 찾아가시다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집무중인 것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이 불행하게도 세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정부에 고용된 일종의 청부업자들로서 세금징수업무를 담당했고 그 과정에 상당한 과다징수를 통해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레위는 무엇에 끌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뱅은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마태 레위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도덕성이나 영적 자질 등이 고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죄인들을 향한 신의 사랑과 긍휼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마태가 생각하고 검토하고 찬성 반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절대 권능으로 부르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거절 못할 능력으로 부르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제자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2. 그를 따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16:24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7:13,14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그 끝에 천국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회에서 3040세대들의 노화속도가 7080세대들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편리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역행해 가면서라도 주님을 따라 살려야 새로운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자세를 롬12:1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생활, 삶의 내용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 정신이 보이고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3. 부르심과 순종

마태는 주님의 거절 못할 능력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도 없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묵묵히 주님 길을 지켰습니다. 마태는 AD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자 예루살렘에 더 거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복귀 시랑으로 피난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부르심에 순종한 후 좌편우고 하지 않고 할길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19: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신하는 그에게 주님은 마19:21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고민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라는 말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김광태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김광태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노제현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히 4:15-16...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 찬 송	14(1, 4절)...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신앙고백		기 도		말 은 이
* 성서 교육	125(사순절2)...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 송 영	4	교회 소식		인 도 자
기 도	말 은 이	성경 봉독	막 2:13-17...	말 은 이
찬 송	251...	찬 양		찬 양 대
성경 봉독	막 2:13-17...	설 교	“나를 따르라”...	손달익 목사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 봉헌송	634...	* 봉헌기도		설 교 자
* 봉헌기도	인 도 자	* 파 송		찬 양 팀
찬 양	찬 양 대	* 축 도		설 교 자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 후 주		찬 양 팀
설 교	“나를 따르라”...			
* 찬 송	459...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막 2:14)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김익환 목사	노선균 집사	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권택숙 권사
			II 오후 7시	조원영 목사	김미영3 권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6:1-2	인 도 자
찬 송	3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216	다 함 께
성 경	눅 10:38-42	인 도 자
장학금 수여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주님이 머무시는 곳” ..	김익환 목사
* 찬 송	22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성 경	왕상 18: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환난 날의 의인들.....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손달익, 현종필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773	723명	2,496명	630명	1,585명